

적대적 M&A 막으려다 ‘자충수’... 부메랑된 3분의2 룰

〈이사선임〉

대한항공 정관의 두 얼굴

조양호 회장 20년 만에 이사직 상실 IMF 당시 특별결의사항으로 바뀌

‘방패’가 자신을 위협하는 ‘창’이 됐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20년 만에 대표이사 자리에서 끌어내린 이사선임 정관 얘기다.

대부분의 상장사에서 이사선임은 출석주주의 과반수만 찬성하면 통과되는 일반결의사항이다. 반면 대한항공은 출석주주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으로 정해졌다. 조 회장 등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33.34%. 특별결의사항으로 묶여놓은 이사선임 정관은 지난 20년간 원하지 않는 이사는 절대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됐지만 반대로 이제는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도 없도록 하는 자충수로 바뀌었다.

〈제36기 주주총회(98.3.24)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건	결의내용	비고
제 36기 주주총회(98.3.24)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영업수익: 4조2,862억원 당기순손실: 3,975억원 배당율: 무배당 - 사업목적에 복합운송주선업 추가 -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 조항 변경 - 일반공모증자등 신설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조항변경 - 이사 및 감사의 수 조항 변경 - 이사 및 감사의 선임방법 변경 -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 조항 변경 - 재무제표 등의 작성, 제출 조항 변경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대한항공 1998년도 사업보고서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부결됐다.

이날 주총에는 전체 주주의 73.84%가 참석했다. 이들 중 66.7% 가량이 찬성해야 했지만 64.1%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사선임이 일반결의사항이었다면 충분히 통과됐을 찬성률이지만 특별결의사항이었던 탓에 조 회장이 사내

사 연임에 실패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 4개 기관 조찬 강연에서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시장참여자와 사회의 인식을 바꾼 이정표”라며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와 달리 합리적 안건이 아니면 주총서 동의를 얻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주총 특별결의는 보통 정관변경이나

경영위임, 영업양수, 이사해임 등 중요한 사안에만 해당된다. 대한항공은 왜 이사선임을 어렵게 만들었을까.

업계에서는 외환위기로 자본시장 등이 전면적으로 개방되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이사선임 관련 정관을 바꾼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월 주총이다. 이사 및 감사의 선임방법 변경안건이 통과되면

사다. 대한항공의 1999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정관에 따르면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고 되어 있다.

시장개방보다는 승계 과정에서 경영권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란 시각도 있다.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회장으로 취임했다.

외국인의 경영간섭과 관련해서는 항

공법이 충분히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법에 따라 외국인은 이사 총수의 반수 이상 선임될 수 없다. 또 외국인은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없으며, 내부 위임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도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당시 외국인 지분율도 높지 않았다. 1998년 말 기준 외국인 주주는 한 명이며, 보유주식수도 82주에 불과했다. 이후 외국인이 매수에 나섰다 해도 1999년 말 기준 외국인 주주 186명, 지분율은 0.56%에 그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한항공이 이사선임을 특별 결의안으로 분류한 것은 이해관계자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한 조치였다. 결국 제 발등을 찍는 자충수를 둔 꼴”이라는 지적에 “의원님 말씀이 일리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급한 불 꺾지만... “아시아나 신뢰회복이 관건”

나신평 “BBB-서 등급 강등될수도” 출자전환·지분매각 등 자구노력 필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이 감사보고서 문제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전문가들은 금호그룹 총수가 갖고 있는 금호고속과 금호타이어 지분을 포기해서라도 추락하는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외부 회계감사 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지 않게 작성됐다는 의미인 ‘한정’ 판정에서 ‘적정’ 판정으로 뒤집혔다. 한정판정외부감사인이 기업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기업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 범



위가 일정 부분 제한됐을 때 제시하는 의견이다.

삼일회계법인인 당시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총당 부채 ▲마일리지 총당금 추가반영 ▲손상 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 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제시했다.

재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액은 소폭 늘고(7조1834억원)

영업이익 감소(282억원), 당기순손실 규모(1959억원)는 늘었다. 부채 비율도 721.0%에서 814.9%로 증가했다.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었지만 거래재개 당일인 26일은 공포심에 억눌렸던 매물이 쏟아져 주가가 14.98%나 급락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신용등급 강등과 채권상환 압박, 기업의 시장 신뢰 회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나이신용평가 등은 지난 22일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이 ‘BBB-’보다 강등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송수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A등급 외에는 모두 위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

다고 봐야 한다”며 “BBB에서 BB등급으로만 떨어져도 C등급인 투기등급에 가까울 수 있어 회사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경우 당장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의 투자자 조기상환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 신규투자나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수익을 얻기보다 채권이지를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

송 교수는 “항공산업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아시아나항공의 현금 창출능력이 괜찮다는 확신이 있다면 출자전환이나 산업은행 채권단에서 이자 내는 것을 포함해 협약을 맺는 것도 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은

행인 산업은행은 원점에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2017년 아시아나항공을 심층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실시를 진행하고, 산업은행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선 출자전환, 지분매각 등 금호 아시아나 그룹 총수 노력으로 기업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 교수는 “상황상 투자자들은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못하게 되고 아시아나는 금액을 낮춰 투자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지분매각 후 출자전환을 통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배권을 포기하는 자산구조만 마련해도 시장의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다”며 “우선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녹차수도 관광보성 축제로 떠나는 여행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

제45회 보성다향대축제

5. 2.(목) ~ 5. 6.(월)

📍 한국차문화공원, 차밭 일원

문의 061-850-5212

제22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5. 3.(금) ~ 5. 5.(일)

📍 보성읍·판소리성지 일원

문의 061-850-5892
061-850-5202

제14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4. 28.(일) 08:00

📍 보성공설운동장

접수 061-375-1288(마라톤세상)
※ 4. 12.(금)까지 접수 / 현장접수 가능

문의 061-850-5962

+ 보성벚꽃축제 4. 6. ~ 4. 14. / 대원사 진입로 일원 + 일림산철쭉문화행사 5. 4. ~ 5. 6. / 일림산 일원

+ 울포 해변 활어잡기 페스티벌 5. 4. ~ 5. 5. / 축제 이후 9월 7일 까지 매주(토)진행 / 울포솔밭해변 일원